

보도설명자료

(‘20. 05. 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신재생에너지 REC 정산방식 변경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
확정된 바 없음(서울경제, 동아일보 5.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◇ 신재생에너지 REC 정산방식 변경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
바 없음

◇ 5월 26일 서울경제 < 신재생에너지 정책혼란에... 투자결정
못내리는 기업들 >, 동아일보 < 발전업계 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
제도 변경 안돼” 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□ 최근 산업부가 REC는 고정하고 SMP를 시장가격으로 정산하는 방안을
추진하며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높여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신재생에너지 REC 정산방식 변경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
바 없음

○ REC 정산방식 변경은 REC 비용을 합리적으로 정산하기 위해 추진
하는 것이며, 발전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
추진할 예정임

※ 문의: 전력시장과 이옥헌 과장/김은성 사무관 (044-203-5172)
신재생에너지정책과 오승철 과장/이보라 사무관 (044-203-5362)